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5. 1.(수) 즉시,
(지면) 2024. 5. 2.(목) 조간,

배포 2024. 5. 1.(수) 17:30

목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공모 진행

- 지난 3월 입찰공고, 총 2개사에서 설계 공모 작품 제출 -

동해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이재영)은 목호항 2단계 재개발의 선도사업인 목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의 설계공모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.

본 사업은 노후화되고 협소한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의 안전확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해 목호항으로 그 기능을 이전할 목적으로 총사업비 323억원을 투입하여 28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.

* (사업규모/사업기간/총사업비) 연면적 등 국제여객터미널 1식/ 2024~2028/ 32,337백만원

이번 설계공모는 목호항 터미널 신축사업의 최적설계안을 도출하고, 다양하고 창의적인 설계안을 검토하고자 일반 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였으며, 3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설계공모에 총 2개 회사가 작품을 제출하였다.

당선작은 건축분야 외부전문가가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향후 본 사업의 용도, 규모, 특성,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심사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5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.

동해해수청 관계자는 “‘목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사업’의 사업기간은 실시설계 기간이 포함된 2024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55개월이며, 사업이 완료되면 여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환경을 제공함은 물론, 업·단체 및 CIQ 기관 종사자들에게 최상의 운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고 밝혔다.